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Shynes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to Loneliness in Children

도 현 심*
Doh, Hyun Sim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shynes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to loneliness in children was examined in a sample of 279 fifth and sixth graders (135 boys and 144 girls) and their teachers. Loneliness and shyness were rated by children themselves and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eer acceptance by their teachers.

Shyness and interpersonal adjustment were found to be predictive of peer acceptance, in which interpersonal adjustment had a greater effect than shyness. Shyness and peer acceptance were found to be predictive of loneliness, in which shyness had a greater effect than peer acceptance. Shyness appeared to have a direct impact on loneliness, whereas for interpersonal adjustment, the relation to loneliness was mediated by peer acceptance. The more shyness and the less interpersonal adjustment they have, the less peer acceptance they have, which results in more loneliness. More attention and research are needed for shyness as well as loneliness in the area of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의 사회적 행동과 훗날의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발달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면서(Kupersmidt, Coie, & Dodge, 1990), 연구자들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그들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들 가

운데 또래로부터의 거부나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매우 활발히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이처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들어 연구자들은 아동이 경험하는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아동 자신의 심리적 측면에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Asher, Hymel, & Renshaw, 1984; Asher, Parkurst, Hymel, & Williams, 1990; Asher & Wheel-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er, 1985).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동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만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또래관계에서 또래와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소외되는 아동들은 결국 내면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그러나 Asher와 동료들을 비롯하여 몇몇 연구자들이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상당히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고, 특히 국내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영인(1988)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상태이다.

관심의 초기 상태에서, 아동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의 초점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아동의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와 관련되어 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또래관계에서 거부되는 아동들에 초점을 두어, 그들이 스스로 외로움을 지각하며 자신의 사회적 상황에서 불만을 경험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었다. 거부아들은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매우 싫어하며, 놀이상황에서 어느 집단에 속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배회하기가 쉽고(Ladd, 1983), 또한 놀이집단에 쉽게 끼여들지도 못한다는 것이(Dodge, Schlundt, Schoken, & Delugach, 1983; Putallz & Gottman, 1981)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부정적 또래경험을 하는 아동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급기야는 외로움을 느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로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연구자들은 외로움과 사회적 지위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반면,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다른 행동특성들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다 일반적인 행동특성의 범주속에 함께 포함시켜 연구하였다(Parkhurst & Asher, 1992). 그러나, 아동의 수줍음이나 대

인적응성과 같은 행동특성들이 아동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할 때(도현심, 1995; Asendorpf, 1990; Black & Hazen, 1990), 이러한 특성들 또한 아동의 외로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수줍음을 덜 타거나 친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또래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은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또래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외로움과도 관련을 가질 수가 있다.

한편,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그리 흔하지 않다. 도현심(1995)은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수줍음이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 가지 행동들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행동들간의 인과성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Cassidy와 Asher(1992)는 아동의 외로움과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수줍음과 또래수용성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 행동특성이 각각 아동의 외로움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동의 외로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외로움과 관련있는 여러 사회적 행동특성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아동이 외로움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국외 연구들의 관심과 달리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도현심(1995)의 연구를 보완하고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첫째, 아동의 또래수용성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서 아동의 수줍음 및 대인적응성은 또래수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아동의 외로움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서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

수용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특성들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로써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이 외로움에 도달하게 되는 경로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은 또래수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은 외로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외로움의 개념

아동의 외로움을 연구하는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기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그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개념이 어린 아동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이 사용한 정서적인 용어를 비롯하여, 외로움을 초래한다고 보고한 상황이나 사건들이 성인들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나타났다(Asher et al., 1990; Cassidy & Asher, 1992). 여러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외로움은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외로움은 꺼리고 싫은 느낌, 즉 불쾌한 경험(aversive experience)을 내포한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와 매우 유사한 점으로 간주된다. 둘째,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개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결핍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핍감은 친구가 별로 없는 경우와 같이 양적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이 부족한 경우와 같이 질적일 수도 있다(Peplau & Perlman, 1982).

이러한 근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 정서적 외로움(emotional loneliness)과 사회적 외로움(social loneliness)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Weiss, 1973). 정서적 외로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친밀한 애착이 결여된 것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정서적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걱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외로움은 사회관계망의 결핍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로부터 초래되며,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외되거나 소속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성인의 경우에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현재까지 양자간에 명백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에서 정의한 것에 근거하여 외로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외로움은 혼자라는 상황에서 슬픔이나 우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만족감을 의미한다(Asher et al., 1990; Cassidy & Asher, 1992; Peplau & Perlman, 1982).

2.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

아동의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사회적 지위는 또한 아동의 수줍음이나 대인적응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들과 관련시켜 살펴볼 수가 있다. 먼저 수줍음과 또래수용성간의 관계는 실제로 수줍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몇 편 안되는 연구들 가운데, French(1988)는 또래관계에서 거부아로

지명되는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된(socially withdrawn)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위축 행동들과 수줍음간의 밀접한 정적 관계에 근거할 때(Rubin & Asendorpf, 1993),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수줍음과 또래로부터의 거부간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Asendorpf(1990)는 낮은 아동들에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행동, 즉 아동의 수줍음은 또래 관계에서 무시 혹은 거부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지위로서 또래수용성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수줍거나 위축된 행동은 또래수용성이 낮은 집단의 특성으로서 보고되기도 한다(Cassidy & Asher, 1992). 이러한 결과는 도현심(1995)에서도 지지되어, 아동이 수줍어 할수록 또래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협의의 사회적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인적응성은 또래간에 생산적이고 상호만족할 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또래와 사이 좋게 지내는 능력을 의미한다(Cassidy & Asher, 1992; O'Malley, 1977).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관계에서 유능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French & Wass, 1987; Stuart, Gresham, & Elliott, 1991),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이며, 비공격적인 아동들은 높은 또래수용성을 나타낸다(Black & Hazen, 1990; Ladd, Price, & Hart, 1988).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은 낮은 또래수용성을 의미하며, 친사회적인 행동은 높은 또래수용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Cassidy & Asher, 1992).

아동의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의 관계에서는 일관적인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Cassidy와 Asher(1992)에 의하면, 양자간의 관계는 상당히 미약하나마 부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도현심(1995)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수줍은 아동일수록 다른 아동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의 관계는 대인적응성의 정의에 따라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대인적응성이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도와 같은 행동특성을 포함하는지 혹은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특성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양자간의 관계는 부적인 관계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소연(1994)에서도 밝혀졌듯이, 수줍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또래나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또래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덜 나타내었다.

3.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과 아동의 외로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의 외로움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여러 가지 행동특성들 가운데 특히 또래수용성이나 인기도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들이 싫어하는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보다 잘 수용되는 아동들보다 외로움을 더욱 많이 보고하였다(Asher & Wheeler, 1985; Crick & Ladd, 1993). 거부아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해 볼 때(Putallaz & Wasserman, 1990), 또래로부터의 거부가 외로움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또래관계에서 거부되는 아동과 소외되는 아동들은 인기아에 비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되었

다(정영인, 1988).

한편, 아동의 또래수용성 이외의 행동특성을 아동의 외로움과 관련시킨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가 않다. 몇 편 안되는 연구들 가운데, 수줍음과 외로움간의 관계는 성인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예측할 수가 있다. 외로운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들에 비해 수줍거나 억제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으며 친구들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 등과 같이 사회적인 접촉을 별로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가 있다(Russell, Peplau, & Cutrona, 1980). Cassidy와 Asher(1992)의 결과에서도 또한 외로움을 더 많이 보고하는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보다 더 수줍은 아이로서 지각되기도 하였다. 또한, 또래와 교사들은 외로움이 높게 나타난 집단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덜 친사회적이며 보다 더 공격적이고 다른 아동들을 보다 많이 방해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지되어, 다른 사람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효율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지는 정도는 외로움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Chelune, Sultan, & Williams, 1980). 이와 같이, 또래수용성과 달리 수줍음이나 대인적용성과 같은 행동을 외로움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상태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줍음과 대인적용성이 또래수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가지 행동특성이 외로움과 가지는 관련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강남에 위치한 S지역에 거주하는 279명의 5~6학년 아동들(남아: 135명; 여아:144명)과 11명의 교사들이다. 이 시기는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부분이 특히 강조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의 사회적 행동특성들과 외로움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완성된 아동의 외로움과 수줍음의 측정을 위한 아동용 질문지와 아동의 대인적용성과 또래수용성의 측정을 위한 교사용 질문지로 구성된다. 아동 자신의 지각이 요구되는 외로움과 수줍음에 비해, 대인적용성과 또래수용성은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각 문항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로서, 각 특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1) 아동용 질문지

아동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sher와 Wheeler(1985)가 개발한 아동의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질문지(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하였다. 외로움에 관련된 총 16개 문항들 가운데 중복적인 문항들을 제외한 총 13개 문항과 취미에 관련된 4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의 첫 작업으로서 외로움과 관련된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17개의 문항들에 대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45이상인 경우를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

결과, 외로움에 관련된 문항들은 요인부하량이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요인에 포함되었다(〈부록〉참고). 각 문항을 제외시키며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12개의 문항들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alpha=.90$ 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아동의 수줍음은 도현심(1995)을 기초로 하여 몇몇 문항들을 보충·재작성하였으며, 총 20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예로서, '수줍어하는 편이다.', '처음보는 아이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한다.', '낯선 아이에게 쉽게 말을 건넨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을 제외시키며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1개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총 19문항은 $\alpha=.79$ 를 나타내었다.

2) 교사용 질문지

아동의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에 관련된 문항들은 도현심(1995)을 기초로 하였으며, 교사들의 평가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능한 적은 수의 문항수를 포함시켜, 대인적응성에 관련된 5문항과 또래수용성에 관련된 7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에 대해 각 문항을 제외시키면서 Cronbach's α 에 의해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인적응성에서 두 문항이 제외된 3문항이 남았으며, 또래수용성은 7문항이 모두 포함되었다. 대인적응성에 포함되는 문항내용은 '친구들과 놀 때,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 '친구들과 자주 싸운다.', 그리고 '친구들이 놀다가 화를 잘낸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또래수용성의 경우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그리고 '이 아동과 짝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다.' 등이 포함되었다.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의 Cronbach's α 는 각각 .87과 .84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과 사회인구학적 조건이 비슷한 12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완성된 자료들을 제외하고 78명의 아동들의 응답을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신뢰도를 산출하여 본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에서는, 먼저 교사들의 도움으로 교실에서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회수하였다. 교사들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교사용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교사는 1인당 약 30명의 아동들을 평가하였으며, 회수된 338부 가운데 질문지 작성을 소홀히 한 경우를 제외한 총 279부가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외로움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수줍음, 대인적응성, 또래수용성, 그리고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행동특성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1〉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은 또래수용성과 각각 유의적인 부적 상관($r=-.22, p<.001$)과 정적 상관($r=.39, p<.001$)을 나타내었다. 즉, 수줍음이 낮고 대인적응성이 높을수록 또래수

용성은 높았다. 또한, 수줍음은 외로움과 유의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r=.44, p<.001$),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은 외로움과 각각 유의적으로 부적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r=-.16, p<.01$; $r=-.34, p<.001$). 즉, 아동의 수줍음이 높고,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이 낮을수록 아동의 외로움은 높았다. 여러 가지 행동특성들 가운데, 아동의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은 유일하게 서로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수줍음, 대인적응성, 또래수용성, 그리고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수줍음	-			
2. 대인적응성	n.s	-		
3. 또래수용성	-.22***	.39***	-	
4. 외로움	.44***	-.16**	-.34***	-

** $p<.01$ *** $p<.001$

2.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간의 관계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을 독립변인으로, 또래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또래수용성은 대인적응성($\beta=.39, p<.0001$)과 수줍음($\beta=-.22, p<.001$)의 순서로 유의적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적응성이 수줍음에 비해 또래수용성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은 또래수용성에 대해 각각 부적 관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수줍음이 많을수록 또래수용성은 낮으며, 대인적응성이 높을수록 또래수용성은 높았다.

〈표 2〉 또래수용성에 대한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의 다중회귀분석

	β	R	R ²	F
대인적응성	.39****			
수줍음	-.22***			
전체		.45	.20	34.38****

*** $p<.001$ **** $p<.0001$

3.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외로움을 예측해 주는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 보기 위해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수줍음과 또래수용성은 모두 아동의 외로움을 유의적으로 예측해 주는 변인들에 포함된 반면에, 대인적응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줍음과 또래수용성은 외로움과 각각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수줍음이 많고 또래수용성이 낮을수록 아동은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줍음($\beta=.39, p<.0001$)은 또래수용성($\beta=-.23, p<.001$)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가짐으로써, 외로움에 대한 그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표 3〉 외로움에 대한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의 다중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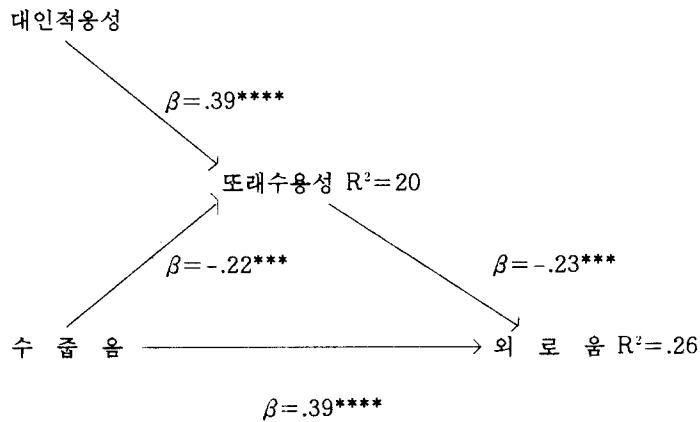
	β	R	R ²	F
수줍음	.39****			
대인적응성	-.06			
또래수용성	-.23***			
전체		.51	.26	32.17****

*** $p<.001$ **** $p<.0001$

한편, <표 1>에서 대인적응성은 수줍음을 제외한 또래수용성 및 외로움과 어느 정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위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외로움에 대해 유의적인 예측변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래수용성이 대인적응성과 외로움간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인적응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대인적응성은 외로움과 유의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beta = -.16, p < .01$). 다음으로 독립변인으로서의 또래수용성과 대인적응성을 순서대로 투입하고,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이전에 유의적이었던 대인적응성과 외로움의 관

계는 더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이처럼 또래수용성을 통제하였을 때 대인적응성은 외로움을 유의적으로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수용성이 대인적응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인적응성은 아동의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또래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또래수용성이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대인적응성이 낮은 아동은 또래로부터 덜 수용되며, 이러한 낮은 또래수용성은 결국 아동으로 하여금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한다.

결과적으로, <표 2>와 <표 3>을 종합하여,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p<.001 *p<.0001

<그림 1> 회귀분석을 이용한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경로모형

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인 외로움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외로움이 그와 관련되는 사회적 행동특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또래수용성과 외로움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점에 근거하여(정영인, 1988; Asher & Wheeler, 1985; Crick & Ladd, 1993), 우선 또래수용성을 이러한 관련성을 가진 사회적 행동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외로움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또래수용성과의 관계를 비추어 외로움과도 어떤 관련성이 있으리라 가정되는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을 또 다른 사회적 행동특성들에 포함시켰다.

먼저, 세 가지의 사회적 행동특성, 즉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은 모두 또래수용성을 유의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즉, 아동은 수줍어할수록 낮은 또래수용성을 나타냈으며, 또래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수록 높은 또래수용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현심(1995)에서 이미 밝혀진 결과와 일치적이었다. 이에 더하여 대인적응성은 수줍음에 비해 보다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의 특성상의 차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수줍음은 하나의 기질적으로 타고난 소극적 특성인 반면에, 대인적응성은 또래관계에서 다른 아동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일종의 공격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에 비해 또래관계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성의 정도에 따라 또래수용성에 미치는 설명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수줍음과 대인

적응성이 서로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대인적응성에 대한 비일관적인 정의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은 아동의 수줍음과 대인적응성의 관계가 대인적응성의 정의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인적응성의 의미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자간의 관계는 부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 이러한 결과는 도현심(1995)에서 포함되었던 좀더 적극적인 내용의 문항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내용이 또래관계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화를 자주 내는 것과 같은 조화롭지 못한 행동특성들의 내용을 포함한 점에 기인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수줍음, 대인적응성, 그리고 또래수용성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특성들간의 관계가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줍음과 또래수용성은 아동의 외로움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아동이 수줍어 할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또래수용성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Cassidy & Asher, 1992). 게다가 아동의 수줍음은 또래수용성에 비하여 외로움에 대해 더 큰 설명력을 가짐으로써, 특히 아동의 수줍음이라는 행동특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즉, 아동의 수줍음은 외로움에 직접·간접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래수용성과 마찬가지로 훗날의 발달과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대인적응성은 또래수용성을 통제할 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적응성이 낮은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이러한 낮은 수용성은 결국 외로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외로움에 초점을 둔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또래수용성이나 인기도와 같은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과 일관되게, 또래수용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다. 즉, 또래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거부되는 아동들은 내면적으로 상당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또래로부터의 거부가 성인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처럼 아동의 외로움도 충분히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에서의 시사점에 더하여, 연구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특히, 외로움과 관련된 척도는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아동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높은 신뢰도를 함께 고려할 때 외로움과 관련된 훗날의 연구들을 위해 중요한 측정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국내의 경우 아동들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들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상태에서, 본 연구는 아동의 외로움이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시사함으로써 외로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기의 사회적 지위와 성인기의 발달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상기시켜 본다면, 아동의 외로움이 미치는 영향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적응성과 또래수용성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수줍음이라는 행동특성이 또래수용력 뿐만 아니라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아동의 수줍음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는 외로움에 대해 보다 확장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도 외로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Cassidy & Asher, 1992), 보다 어린 연령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청소년기까지도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부모-자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외로움에 대한 연구도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부모의 양육행동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아동의 외로움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도 밝혀져야 할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전한 또래관계 혹은 사회적 발달의 맥락에서 아동의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보다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 자신을 비롯한 주변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체 아동들 가운데 약 10% 정도의 아동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Asher, 1984), 실제로 외로움을 겪는 아동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수의 아동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마저 등한시 된다면, 이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수의 소외된 집단속에서 불건전한 발달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소연(1994). 아동의 수줍음과 놀이실에서의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5). 6학년 아동의 수줍음: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5), 1-11.
-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endorpf, J. B. (1990).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Evidence for situational specificity and a two-factor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21-730.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7.
- Asher, S. R., Park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 Black, B., & Hazen, N. L. (1990). Social status and patterns of communication in acquainted and unacquain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79-387.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helune, G. J., Sultan, F. E., & Williams, C. L. (1980). Loneliness,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2-268.
- Crick, N. R., &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Attributions,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44-254.
- Dodge, K. A., Schlundt, D. G., Schoken, I., & Delugach, J. D. (1983).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The role of peer group entry strategies. *Merrill-Palmer Quarterly*, 29, 309-336.
- French, D. C. (1988).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boys: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subtype.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French, D. C., & Wass, G. (1987).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eer-rejected boys. *Professional School Psychology*, 2, 103-112.
-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 O. (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r role of poor peer re-

-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1983). Social networks of popular, average, and rejected children in school settings. *Merrill-Palmer Quarterly*, 29, 283-307.
- Ladd, G. W., Price, J. M., & Hart, C. H. (1988). Predicting preschoolers' peer status from their playgrou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59, 986-992.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29-44.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31-241.
- Peplau, L. A., & Perlman, D. (1982).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
- Putallaz, M., & Gottman, J. M. (1981). An interactional model of children's entry into peer groups. *Child Development*, 52, 986-994.
- Putallaz, M., & Wasserman, A. (1990). Children's entry behavio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60-8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Asendorpf, J. B. (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Conceptu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3-1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ussell, D. W.,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tuart, D. L., Gresham, F. M., & Elliott, S. N. (1991). Teacher ratings of social skills in popular and rejected males and femal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6, 16-26.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IT Press.

<부 록>

외로움 관련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전체점수간 상관계수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문항-전체점수간 상관계수
9. 반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	.79	.74
6.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73	.61
15. 학교에서 소외된(따돌림을 당한) 느낌을 느낄 때가 많다.	.70	.61
16.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친구가 아무도 없다.	.67	.58
4. 반에서 함께 놀 친구가 별로 없다.	.66	.58
8.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66	.61
13.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어렵다.	.65	.64
3. 우리 반에 친한 친구가 많다.	.64	.62
17.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61	.56
2.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귄다.	.61	.61
11. 반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해낼 수 있다.	.56	.55
1.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친구들이 가까이에 있다.	.55	.57